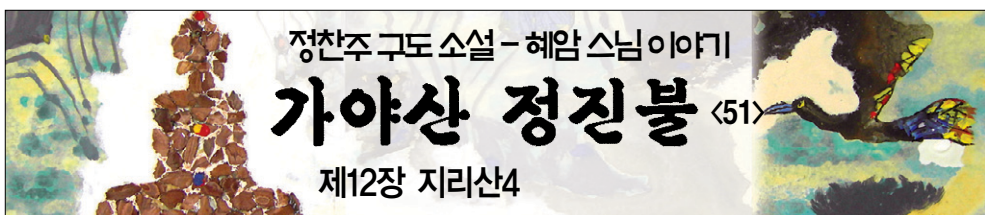


# ‘공부하다 죽어라’ 들을 때마다 절절하고 새로운 말



도솔암을 오르는 동안 정견 스님은 대연 거사를 마치 속가 친구 대하듯 무엇이든 숨김없이 얘기했다. 대연 거사는 그러한 정견 스님에게 호감을 느꼈다. 스님의 심성이 웅담샘의 물맛처럼 순수하고 시원했다.

“절도 지리산에 있고, 속가도 지리산에 있는데 왜 굳이 출가하셨습니까?”

“그냥 절이 좋던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스님 되고 싶어 절에 가니까 졸업하고 오라 했지요. 속가 부친도 절하고 인연이 깊었고요. 나는 스님들이 좋아 죽겠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염불소리가 나면 끝까지 들어야 했고, 스님들이 탁발하러 오시면 저 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막 궁금해져요. 속가가 벽송사 밑에 있는 마을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스님들이 낮았지요. 할양 이쪽에 사는 친척들도 대부분 불자들입니다.”

이윽고 도솔암에 도착하니 몸이 비직 마른 스님이 정견 스님을 맞이했다. 머리 휴대폰으로 연락이 된 듯 젊은 스님이 마당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늦었지만 점심공양 준비 좀 하시겠습니까?”

“저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디.”

젊은 스님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대연 거사는 도솔암 경내를 이리저리 산책했다. 대룡으로 물을 받는 수각은 인법당 왼쪽에 있고, 해암 스님이 주석했던 토굴도 보였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과 토굴 뒷마루에 앉아 잠시 쉬었다. 작은 산자락이 인법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눈앞으로는 활처럼 둥그런 지리산 능선 안으로 거대한 허공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대연 거사는 자신도 모르게 도솔암의 풍광에 감탄했다.

“정대 조사께서 어떻게 이런 정상에다 암자 터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암자들은 대부분 마당이 비좁아 마음이 급해지는데 도솔암은 그렇지 않았다. 마당이 넉넉하여 발걸음을 한가롭게 했다. 그런가 하면 멀리 솟아 있는 지리산의 유장한 능선들이 두 눈을 상쾌하게 맑혀 주었다. 능선 안에 담긴 일원상처럼 크고 빈 허공은 무엇에나 걸림 없게 해주는 듯했다. 누군가가 토굴 한쪽에 붙여놓은 정대 조사의 시가 절로 이해되었다.

구름 없는 가을 하늘 둥근 거울이여  
외기러기 날아가며 흔적을 남기는구나  
남양의 저 노인네는 이 소식을 알았으니  
꽃바람 천리 사이 말없이 통해지네.  
雲遊秋空一鏡圓 寒鷗隻去偶成痕  
南陽老子通消息 千里東風不負言

## 대연 거사는 도솔암 오르며 풍광에 감탄

## 정견 스님은 해암 스님 얘기에 눈시울 붉혀

정대 조사가 지리산의 산중암자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보다가 외기러기가 날아가자, 문득 중국의 옛 선사들이 생각나 지는 계승이었다.

중국 선사 중에 마조도일(馬祖道一)과 경산도흥(徑山道欽), 남양해중(南陽慧忠) 등이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마조가 일원상을 그려 경산에게 보내자, 경산이 마조에게 짐을 하나 짊어 되돌려 보냈던 바, 이를 전해들은 남양이 ‘흠, 경산도흥이 마조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갔구나’ 하고 말했던 것이다.

정대인오(青梅印梧).

조선 중엽에 서산 대사의 회상에 들어가 밥을 얻은 다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대사를 따라 승병장이 되어 3년 동안 왜군과 싸워 공을 세웠고, 그림에도 뛰어난 광해군 때는 왕명으로 벽계정심(碧溪淨心), 벽송지엄(碧松智嚴), 부용영관(芙蓉靈觀), 서산휴정(西山休靜), 부휴선수(浮休善修) 등 오대 선사들의 영정을 그렸으며, 선시에도 뛰어난 십이각시(十二覺詩)와 십무의송(十無益頌) 등을 지어 승속 간에 교화를 펼쳤던 선사였다.

전쟁이 끝나자, 스님은 변산반도 월명암으로 올라가 암자를 중수하여 지냈고, 지리산 도솔암으로 숨어들어와 정진했는데, 공부는 고요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남원 등에 장이 서면 암자에서 산쪽으로 만든 조리를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정터로 나갔다. 조리장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

참선을 했다. 소란스러운 정터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면 ‘오늘 장사를 잘했다’ 하고 화두가 순일하지 못하면 ‘오늘 장을 잘못 보았다’ 하면서 가지고 간 조리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도솔암으로 돌아오곤 했다.

입적은 연곡사에서 했는데, 스님을 똥을 싸서 벽에 발랐다. 구린내를 풍기니 대중 모두가 스님을 피해 달아났다. 마지막까지 간병하던 부목마저 떠나려고 하자, 스님이 부목을 불러 말했다.

“너는 도인이 열반하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아라.”

스님이 열반에 들자 풍철했던 방 안에서 향기가 진동했다. 연곡사 대중들이 스님의 이적에 신심을 내어 부도를 조성하였으나 그곳에 세우지 않고 도솔암으로 옮겼다. 이후 조선 왕조와 함께 도솔암도 허물어지고 스님의 부도만 잡초 속에서 남게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솔암 쪽에서 산불이 난 듯 불길이 한동안 나타났다. 불을 끄려고 마을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갔으나 불난 흔적은 없었다. 세 번째에는 영원사 스님들과 함께 올라가보니 부도에 붙인 스님의 사리에서 방광을 하고 있었다. 스님 사리에서 방광한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에 일본인이 부도를 영원사로 옮겨버렸다. 오르기 힘든 도솔암에 두느니 영원사로 옮기는 것이 관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계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원사로 온 스님 부도는 다시는 방광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왜군을 물러친 승병장이었던 스님이 일본인들의 장사숙을 알고 자취를 감추다며 입소문을 내어 전했다.

스님이 남긴 십이각시(十二覺詩)는 이러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네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된 깨달음이라 하리오.  
覺非覺非覺  
覺無覺覺覺  
覺覺非覺覺  
豈獨名眞覺

점심공양 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의 안내를 받아 도솔암 주변을 산행했다. 도솔암 바로 앞에 왕릉처럼 생긴 산봉우리 하나가 볼록 솟아 있었다. 산봉우리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뒹어져 있었다.

“스님께서는 무슨 화두를 받았습니까?”

“출가했을 때 노장님께서 만법귀일(萬法歸一)을 주셨습니디.”

“만법귀일이 무엇입니까?” 대연 거사가 스스럼 없이 묻자 정견 스님이 웃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화두를 들면 집중이 잘 되지요. 집중을 끊이지 않게 애를 쓸 뿐입니다. 선방 다니고 하는 것이 다 집중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념으로 들어가면 번뇌 망상이 지워지고 희열이 생깁니다. 일여하게 가니까 확신이 들고요. 내 자신이 부처라는 확신 말입니다. 노장님께 고마울 뿐입니다.”

정견 스님은 말하다가 해암 스님이 그리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큰스님과 정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노장님하고 열여덟 살에 만나 제자가 되었지요. 상무주암에 살 때 점심공양 마치고 나면 ‘정견아, 빨리 나와라. 길 고쳐러 가자’ 고 하면 곡괭이 들고 나가 길을 고쳐줍니다. 밥 먹으면 길을 고쳐야 한다. 길이라는 게 꼭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말씀 같았어요. 그때는 남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진이었습니디.”

어느 새 정견 스님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해암 스님의 가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장님은 어느 정도 길이 고쳐지면 나무를 하도록 시켰지요. 도솔암에서 나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 “ 노장님 모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 수좌의 생명은 정진, 그게 없으면 수좌라 할 수 없어요 ”

각간 스님도 나무하는 데는 한 지게 했지요. 땀나무가 충분해도 노장님은 각간 스님과 나를 향해 ‘이 놀물야, 나무는 많이 해놓고 밥같은 해야지. 나무를 많이 해놓으면 뒷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노장님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무를 틀나는 대로 쌓아놓고는 또 미련 없이 암자를 떠나버리시곤 했습니다. 나무를 하는 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암자에서 먼 곳부터, 아래쪽부터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야 뒷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산중암자에는 옛 스님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견 스님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마다 달라요. 뒷사람을 위해 양식과 땀나무를 쌓아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쓴 것만 채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오건 말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옛 스님들이 도 뒤지 말고 사람 되라고 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해암 큰스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노장님께서 승려대회에서 호령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해인사 큰 법당에서 사자후를 토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한밤중에 홀로 정진하고 계시는 노장님이 내 마음속의 노장님입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릴 때였습니다. 암자에서 노장님과 한방을 찢던 암자였지요. 좁은 방을 막 해매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새벽에 일어났는데 노장님께서 앞서서 정진하고 계시었어요. 화두일념. 그게 딱 보여요. 그때 노장님 모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수좌의 생명은 정진이지요. 그게 없으면 수좌라 할 수 없어요.”

“큰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저는 칠불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칠불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 3일 만이었어요. 꿈속에 노장님이 나타나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꿈속이지만 그냥 갈 수 없었지요. 노장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칠불의 약수라도 따가려고 했는데 흙탕물이 나와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깬데 노장님께서 입적하셨다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흙탕물이 나온 것은 노장님께 더 해드릴 것이 없는, 나와서 인연이 다했다는 것이었지 않나 싶어요.”

대연 거사는 갑자기 도솔암에 남아 정진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정견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제가신자도 도솔암에서 정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견 스님은 도솔암의 형편을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 여러 대중이 정진하기에는 식수도 그렇고 방사도 마땅찮지 않습니다. 이곳에 전기만 들어와도 난방이 해결되니까 제가신자 몇 명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랫든 승속을 떠나 참선공부는 사람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데 매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 웅맹정진을 마치고 백장암을 갔더니 어디서 왔냐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다고 해요. 참선을 통해서 심신이 맑아졌던 것이지요.”

“정말 도솔암에 오니 신심이 나고 마음이 격동됩니다. 이런 데라던 절로 도가 뒤어질 것 같습니다. 해암 큰스님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면서도 왜 이런

곳에 토굴을 지으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견 스님은 누구보다도 은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공부하다 죽어라’, 은사 스님에게 늘 듣는 말이지만 그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지고 새롭다는 것이었다. 특별하게 애를 쓰고 정진한 분의 말이라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었다.

<계속>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칠야 웅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http://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